

세계 유기농업 현황과 시사점 *

김 윤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세계 유기농업의 성장 배경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현대 과학농업의 녹색혁명 시기를 지나면서 농업생산성은 250%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Dale Allen Pfeiffer 2004). 이 기간 동안 인류의 수명연장으로 인구수는 크게 늘었으며 산업화의 근간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였다. 이로 인해 기계화는 물론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도 급격히 늘어났고, 화학 에너지의 투입으로 농업의 자본의존도가 높아졌으며,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농업 독점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재배작물 및 작목의 다양성 보다는 획일화로 인한 생산성 확대에 따라 농촌의 문화 파괴, 문화 획일화, 토양 및 수질 오염, 토양 비옥도 저하, 수자원 고갈 등과 같은 생태문제가 발생하였다. 식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먹거리의 안전성 훼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지형진 2013).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공영하는 시대의 농업이 대두되었다. 천연자원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농업(Eco-agricultur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기농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 (mindy33@krei.re.kr 02-3299-4026).

2. 세계 유기농업 현황

2.1. 세계 유기농지 면적 현황

2.1.1. 전세계 유기농지 면적 현황

2013년 조사¹⁾된 세계 유기농지 면적은 4,300만 ha에 이른다. 대륙별로 보면 오세아니아의 유기농지 면적은 1,732만 ha로 전체 40.2%를 차지한다. 다른 대륙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오세아니아에 이어 유럽은 26.6%의 비중을 차지하며, 1,146만 ha로 두 번째로 넓은 유기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는 15.3%의 비중을 차지하며 660만 ha로 세 번째로 넓은 유기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유기농지의 82%는 오세아니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분포하고 있으며, 나머지 18%는 아시아가 342만 ha, 북아메리카는 304만 ha, 아프리카는 122만 ha에 분포하고 있어 하위 3개 대륙과 상위 3개 대륙 간의 유기농지의 면적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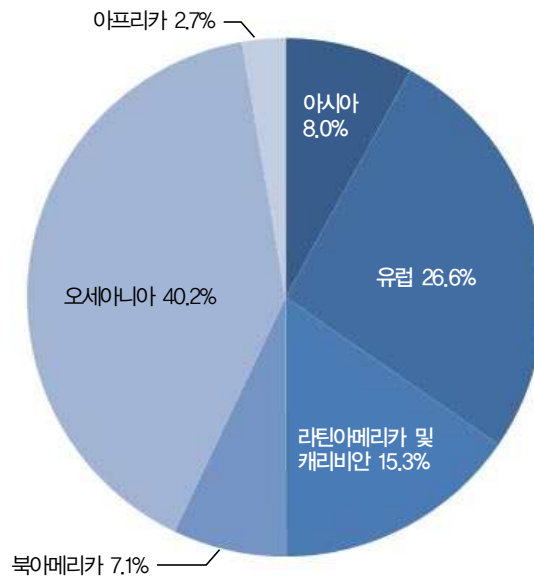
표 1 세계 유기농지 면적 및 지역별 면적 비중(2013)

지역	유기농지 면적(ha)
아프리카	122만 7,008
아시아	342만 5,939
유럽	1,146만 773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661만 1,636
북아메리카	304만 7,710
오세아니아	1,732만 1,733
전체	4,309만 1,113

자료: FiBL and IFOAM(2015).

1) 본고의 세계 유기농업 현황 분석은 2015년 발간된 FiBL and IFOAM의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2015"의 세계유기농업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참고하였음. 통계자료는 유럽의 대표적 친환경 농업연구기관인 유기농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Organic Agriculture, FiBL)와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등 기타 유관기관들과 함께 수행한 16번째 유기농업 통계자료를 참고함. 지중해 국가들의 통계는 지중해 유기농업네트워크(Mediterranean Organic Agriculture Network, MOAN)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태평양 섬 국가들은 태평양유기농 공정무역 지역단체(Pacific organic and ethical trade community)에게 제공받음. 유럽은 유기농통계네트워크(Organic Data Network) 프로젝트의 틀에 따라 수집된 통계가 이용됨. 전체 통계는 2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제공함. 조사에 이용된 대륙별 국가는 아프리카가 39개국, 아시아 39개국, 유럽 47개국,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이 30개국, 북아메리카 3개국, 오세아니아 12개국으로 전체 170개국 임

그림 1 세계 유기농지 비중(2013)



자료: FIBL and IFOAM(2015).

2.1.2. 국가별 유기농지 면적 연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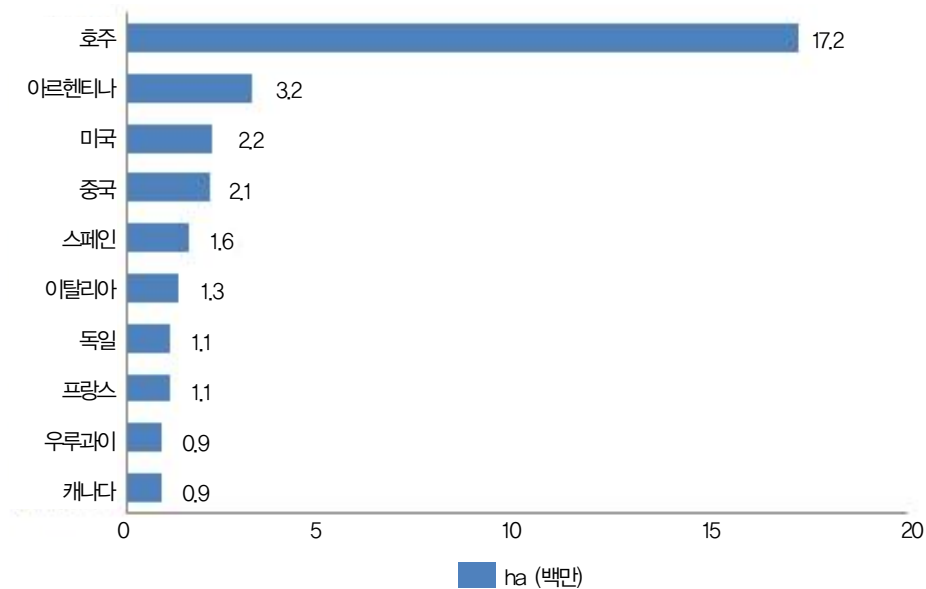
국가별 유기농지 면적은 2011년 이후 유기농지의 중대한 성장을 경험한 호주의 면적이 압도적으로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유기농지 면적은 1,715만 ha에 이르는 데 이는 두 번째로 유기농지 면적이 넓은 아르헨티나와 비교해도 5배 이상 넓은 면적이다. 아르헨티나는 319만 ha의 유기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유기농지가 넓은 국가는 북아메리카의 미국으로 217만 ha이다.

유기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오세아니아와 세 번째로 넓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호주와 아르헨티나와 같이 대륙 내 일부 국가의 면적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에 반해 두 번째로 유기농지 면적이 넓은 유럽은 국가별 유기농지 면적이 균일하다. 상위 10개국의 대륙분포를 살펴보면 오세아니아의 호주,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아시아의 중국, 라틴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북아메리카의 미국, 캐나다이다.

상위 10개국의 유기농지 전체 면적은 약 3,000만 ha에 달하는데 이는 세계 전체 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집중도를 나타낸다.

상위 20개국으로 확대하는 경우, 아시아 국가는 인도(15위)와 카자흐스탄(13위)이, 라틴아메리카는 페루(11위)와 멕시코(16위) 등이 속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는 여전히 포

그림 2 상위 10개국의 농지 면적 (2013년)



자료: FIBL and IFOAM(2015).

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2만 ha로 전체조사 국가 중 73위에 머물고 있다. 인근 국가인 일본은 85위로 1만 ha의 유기농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농지면적을 보유한 중국은 210만 ha로 네 번째로 유기농

표 2 유기농업 면적 상위 20개국

국가	유기농지 면적(ha)	국가	유기농지 면적(ha)
호주	1,715만	페루	70만 5,233
아르헨티나	319만 1,255	그리스	66만 1,956
미국	217만 8,471	카자흐스탄	56만 7,751
중국	209만 4,000	오스트리아	52만 6,689
스페인	161만 129	인도	51만
이탈리아	131만 7,177	멕시코	50만 1,364
프랑스	106만 756	스웨덴	50만 996
독일	106만 669	체코	47만 4,231
캐나다	93만 965	터키	46만 1,396
우루과이	86만 9239	포클랜드 제도	40만 3,212

자료: FIBL and IFOAM(2015).

지가 넓은 국가이다. 그러나 농업 비중이 높은 아시아의 인도(51만 ha, 15위), 카자흐스탄(29만 ha, 24위), 필리핀(10만 ha, 43위), 인도네시아(7만 ha, 45위), 베트남(4만 ha, 56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넓은 농업경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륙 및 국가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유기농지 면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통계자료를 통하여 아시아 국가는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1.3. 유기농업 토지의 성장 추이

유기농지 면적이 1,100만 ha이었던 1999년과 비교하여 2013년 유기농지 면적은 4배 이상의 증가하여 유기농업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3년 세계 유기농지 면적은 전체 4,309만 ha로 2012년과 비교하여 560만 ha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15%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이러한 증가는 2011년과 비교하여 2014년 기준 인증된 유기농지 면적 증가율이 약 53% 성장한 호주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는 유기축산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방목장 지역을 유기생산지역으로 전환하였다.

2013년 유기농지 면적은 라틴아메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증가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은 오세아니아로 2012년 대비 515만 ha가 늘었는데, 증가율은 약 42%로 전체 증가율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대륙은 아프리카로 6.75% 증가율을 보였다. 라틴아메리카는 약 20만 ha가 감소하여 0.5%의 감소율을 보였다.

표 3 세계 유기농지 면적 대륙별 증감률

대륙	유기농지 면적(ha) 2012년	유기농지 면적(ha) 2013년	면적 증감량	증가율
아프리카	114만 9,461	122만 7,088	7만 7,627	6.75
아시아	321만 8,701	342만 5,939	20만 7,238	6.44
유럽	1,113만 5,208	1,146만 0,773	32만 5,565	2.92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681만 3,540	661만 1,636	- 20만 1,904	-2.96
북아메리카	301만 2,354	304만 7,710	3만 5,356	1.17
오세아니아	1,216만 4,316	1,732만 1,733	515만 7,417	42.40
세계	3,749만 215	4,309만 1,113	560만 898	14.94

자료: FiBL and IFOAM(2015).

국가별로는 72개 국가의 유기농지가 증가한 반면 31개 국가의 유기농지는 감소하였다. 61개국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나, 새로운 데이터가 부재했다. 호주 다음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중국, 페루, 이탈리아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1만 5,518ha에서 2012년 2만 5,467ha로 1,000 ha에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 다시 2만 1,210ha로 16.7% 감소하였다.

2.2. 농지 대비 유기농지 면적 비중

2.2.1. 대륙별 유기농지 면적 비중 연왕

전 세계 유기농지 면적은 전체 농지의 0.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²⁾ 대륙별 전체 농지대비 유기농지 면적 비중은 오세아니아가 4.1%로 가장 높았으며, 유럽은 2.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그러나 EU로 한정하는 경우 유기농지 면적 비중은 5.7%로 2배 이상 높아진다.³⁾ 세 번째로 유기농지 비중이 높은 대륙은 라틴아메리카로 1.1%의 비중을 보인다. 나머지 3대륙은 1%에 못 미치는 비중을 나타냈다. 유기농지 면적이 3번째로 높은 국가인 미국과 10번째로 높은 캐나다가 속한 북아메리카의 경우 유기농지 면적 비중이 0.7%에 불과하였으며, 방대한 농지의 농업 국가들이 분포하고 있는 아시아는 훨씬 낮은 0.2%의 유기농지 비중을 나타냈다.

표 4 대륙별 유기농지 면적 및 비중

대륙	유기농지 면적(ha)	전체 농지 대비 비중
아프리카	122만 7,088	0.1%
아시아	342만 5,939	0.2%
유럽	1,146만 773	2.4%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661만 1,636	1.1%
북아메리카	304만 7,710	0.7%
오세아니아	1,732만 1,733	4.1%
세계	4,309만 1,113	1%

자료: FIBL and IFOAM(2015).

2)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통계가 유의한 국가에 한 함.

3) EU의 폴란드는 유기농지 면적 비중이 36.3%에 이르며, 리히텐슈타인이 약 31%, 오스트리아가 19.5%에 달함. EU 회원국 중 농지 면적의 10% 이상인 국가는 11개국에 달해 유기농업이 상당히 성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또한 유럽 및 다른 대륙 국가들과 비교하여 전체 농지대비 유기농지 면적의 비중이 높음.

2.2.2. 국가별 농지 중 유기농지 면적 비중 현황

개별 국가는 비교적 유기농지 면적 비중이 높으며, 국가별 비중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상위 11개국들의 유기농지 비율은 10%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이들 대부분은 유럽 국가들이다. 가장 높은 유기농지 비중을 보이는 국가는 포클랜드 제도로 농지 대비 유기농지 비중이 36.3%에 달하며, 이 지역의 양 농장들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인 리히텐슈타인은 국가 전체 농지의 31%가 유기농지이다. 유기농지 비중이 10%가 넘는 국가는 유럽 국가들이며, 상대적으로 농지 면적이 크지 않은 국가들의 유기농지 면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절대적으로 농지 면적이 넓은 국가가 많은 아시아는 대부분의 국가가 전체 농지 대비 유기농지 비중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대륙 중 유기농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동티모르이며 비중은 6.6%로 전체국가 중 19위에 해당한다. 몽골은 4.7%로 아시아 대륙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부탄은 1.3%로 세 번째다. 유기농지 비중이 네 번째로 높은 한국은 1.1%로 전체 국가 중 62위이다. 다른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만은 0.7%로 72위이며, 중국은 0.4%로 89위, 일본은 0.3%로 99위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이 여전히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5 세계 유기농지 면적 비중 상위 20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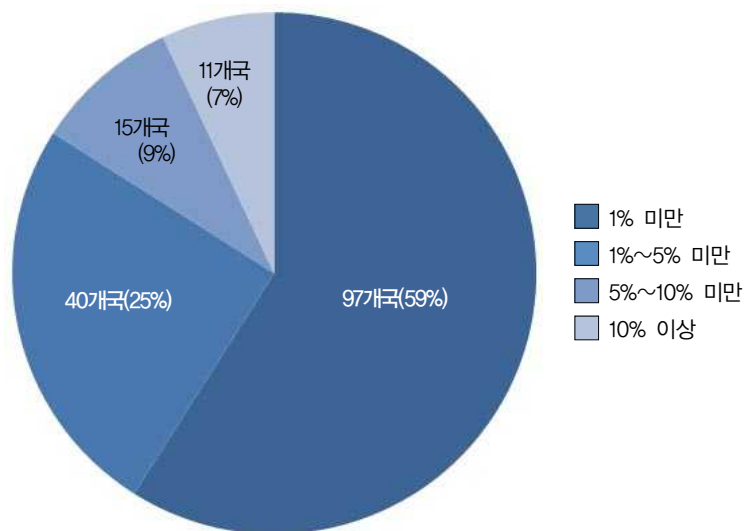
국가	유기농지 면적 비중(%)	국가	유기농지 면적 비중(%)
포클랜드 제도	36.6	이탈리아	10.3
리히텐슈타인	31.0	도미니카	9.3
오스트리아	19.5	핀란드	9.0
스웨덴	16.3	슬로바키아	8.8
에스토니아	16.0	페로 제도	8.4
스위스	12.2	슬로베니아	7.6
프랑스령기아나	11.9	포르투갈	8.1
사모아	11.8	상투메 프린시페	7.2
체코	11.2	동티모르	6.6
라트비아	11.0	스페인	6.5

자료: FIBL and IFOAM(2015).

2.2.3. 유기농지 비중 별 분포

2015년 FiBL and IFOAM 조사에 따르면 97개국의 약 59%가 전체 농지대비 유기농지 면적 비중이 1% 미만이며, 1% 이상 5% 미만은 국가는 총 40개국이며 25%를 차지한다. 유기농지 면적이 전체 농지 중 5% 이상 10% 미만인 국가는 15개국으로 9%를 차지하며, 10% 이상 국가는 총 11개국이며 7%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지 면적 비중이 5% 미만인 국가는 총 137개국이며 85%를 차지하여 유기농업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세계 유기농지 비중 별 분포



자료: FiBL and IFOAM(2015).

2.3. 유기농업 생산자 현황

2.3.1. 유기농업 생산자 증가 추이

유기농업 생산자는 대략 20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2012년과 비교하여 유기농업 생산자는 약 7만 1,160명이 늘어나 3.7%의 증가율을 보였다. 북아메리카의 유기농업 생산자는 0.5% 감소하였는데 이를 제외한 모든 대륙의 유기농업 생산자가 증가

4) 유기농 농장의 정확한 수치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음. 첫째, 어떤 국가는 오직 회사, 사업, 재배자 그룹의 수를 기록하는데 이는 각각은 수많은 개인 생산자들로 구성된. 둘째, 어떤 국가는 생산자의 수를 전혀 제공하지 않음. 셋째, 야생 집적 지역을 갖는 국가들은 수집가들도 유기농 생산자로 포함시키기도 함. 넷째, 어떤 국가들은 작물 당 생산자들의 수를 제공하는데,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들이 중복될 수 있음. 따라서 유기농업 생산자들의 전체 수는 해당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보다 다소 높을 가능성이 있음.

표 6 세계 유기농지 면적 대륙별 증감률

지역	2012년 생산자 수(명)	2013년 생산자 수(명)	증감	증감률(%)
아프리카	57만 2,863	57만 4,129	1,266	0.2
아시아	68만 5,437	73만 744	4만 5,307	6.6
유럽	32만 1,474	33만 4,870	1만 3,396	4.2
라틴아메리카	31만 6,583	31만 9,459	2,876	0.9
북아메리카	1만 6,470	1만 6,393	- 77	-0.5
오세아니아	1만 4,605	2만 2,997	8,392	57.5
총합	192만 7,432	199만 8,592	7만 1,160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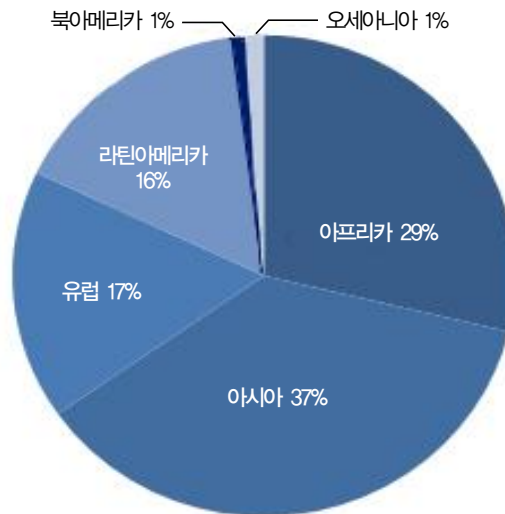
자료: FiBL and IFOAM(2015).

하였으며 그중 오세아니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2012년 대비 57.5%나 증가한 것으로 전체 3.7%의 증가율에 비하여 20배 이상 증가된 추세이다. 가장 많은 유기농업 생산자가 속한 아시아의 경우에는 2012년보다 4만 5,307명이 증가하여 두 번째로 높은 6.6%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 파푸아뉴기니, 터키, 페루 그리고 세네갈 순으로 2012년 대비 2013년 유기농업 생산자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3.2. 대륙별 분포도

대륙별 생산자 분포도를 살펴보면 아시아 유기농업 생산자가 전체의 36%, 아프리카

그림 4 세계 유기농업 생산자 대륙별 분포도



자료: FiBL and IFOAM(2015).

가 29%를 차지한다.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는 각각 17%와, 16%로 비슷한 분포도를 보이며, 유기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대륙인 오세아니아와 북아메리카는 각각 1%에 불과하다. 이는 면적대비 생산자 수가 현저히 낮으며 기계화 및 기술수준이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3.3. 국가별 생산자 분포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인도가 6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낸다. 이는 두 번째로 생산자 수가 많은 우간다의 18만 9,610명 보다 3배가 넘는 수치이다.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멕시코는 16만 9,703명이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는 14만 8,610명, 에티오피아는 13만 4,626명 순이다.

생산자 수 기준의 상위 10개국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오세아니아와 북아메리카를 제외하고, 아시아 1개국, 아프리카 3개국, 라틴아메리카 2개국, 유럽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지 면적기준 하위대륙인 아시아, 아프리카는 생산자가 많아 여전히 다른 대륙과 비교하여 유기농업의 기계화와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5 국가별 유기농업 생산자 상위 10개국



자료: FIBL and IFOAM(2015).

생산자 이외의 관련 종사자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5만 1,000명의 가공업자가 있으며, 최소 6,200명의 수입업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유럽국가에 속해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가공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그리고 기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4. 유기농식품 시장

2.4.1.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2013년 유기농식품과 음료의 세계 판매액은 72억 달러이며, 수입은 1999년 이후 5배가 증가하였다. 유기농제품 판매액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두 대륙은 세계 판매액의 90%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 아시아, 호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는 유기농산물의 주요 생산국이지만, 유기농식품 시장의 규모는 여전히 작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 간 유기가공식품 관련 협정들이 체결되고 있어 이를 통한 유기가공식품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4년 7월 1일, 미국과 새롭게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협정⁵⁾을 발효하였는데, 이는 미국 유기가공품에 중요한 아시아 시장이 재개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요인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유기농식품 시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와 일본도 2014년 9월에 동등성협정을 체결하여 국가 간 유기가공품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

2.4.2. 내수시장

유기농식품 시장의 규모는 미국이 243억 유로, 독일이 75억 5,000만 유로, 프랑스가 44억 8,000만 유로, 중국이 24억 3,000만 유로 순이다.⁶⁾ 유기농식품 시장의 상위 10개국 중 미국, 캐나다, 중국을 제외하면 모두 유럽 국가들로 유럽지역 소비자들의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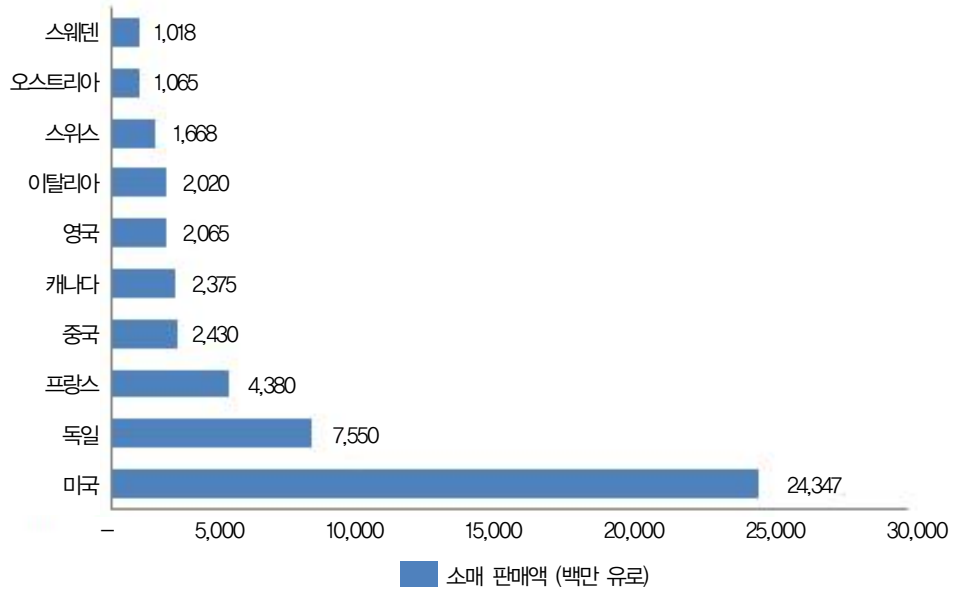
유기농식품 소매 판매액 상위 8개국은 전체 소매 판매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5)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이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인정하는 협정임. 한·미 양국이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서로 인정하기 위하여 맺은 협정으로 2014년 7월 1일 발효된 협정에 따라 국내 사업자는 유기농 원료 95% 이상을 가공식품을 만들고 정부로부터 유기농인증(USDA)의 유기농인증표시를 부착한 후 수출할 수 있음. 미국 또한 자국 인증을 받은 유기농식품을 한국으로 수출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의 유기농식품 표기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미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더라도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국내에서는 유기농 표시를 할 수 없음. 양국은 유기농 인증 자체는 인정하지만 한국에서 통관, 유통의 과정에서 GMO가 발견될 경우 유기농 표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함.

6) 소매판매 데이터가 이용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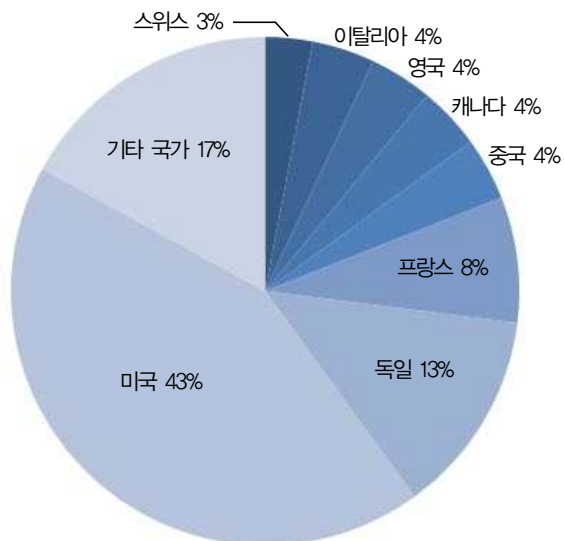
상위 10개국인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의 소매 판매액은 전체 17%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간 시장규모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국가별 유기농식품 소매 판매액



자료: FIBL and IFOAM(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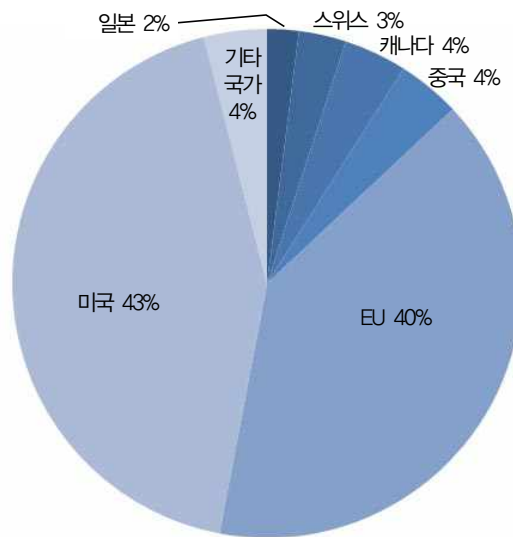
그림 7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규모 비중(국가별)



자료: FIBL and IFOAM(2015).

단일시장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이 가장 크며, 유럽이 222억 유로로 시장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4%로 3번째로 시장규모가 크며, 유기농지 면적 및 생산자 수의 순위가 낮았던 일본은 전체 유기농식품 소매 판매액의 2%를 차지하여 6 번째로 큰 시장규모를 나타냈다.

그림 8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규모 비중(단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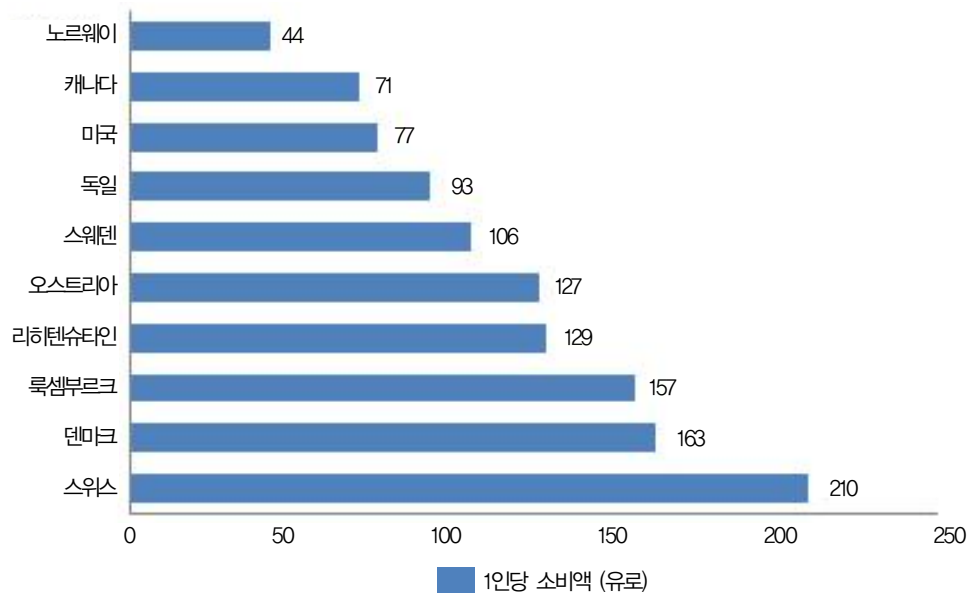
자료: FIBL and IFOAM(2015).

유기농식품 시장의 성장은 2013년 조사된 모든 국가에서 나타났는데, 가장 크게 성장한 국가는 미국으로 2012년 대비 17%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스위스가 12% 로 뒤를 이었다.

2.4.3. 1인당 소비

1인당 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유럽으로 나타났다. 그 중 스위스의 1인당 유기농 식품 소비는 210유로로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는 163유로, 룩셈부르크는 157유로의 순이다. 1인당 유기농식품 소비액의 상위 10위 국가들은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 모두 유럽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9 상위 10개국의 유기농식품 1인당 소비액



자료: FIBL and IFOAM(2015).

3. 시사점

세계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량생산 중심의 과거와는 달리, 친환경방식의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유기농업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난 10여 년간 친환경농업에 공을 들여왔던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유기농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저농약 인증이 2016년 폐지되기 때문에 무농약 및 저농약 인증을 유기농인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유기농업 성장을 통해 유기농식품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국가⁷⁾로 수출을 확대하고, 최근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고소득층의 소비 욕구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7) 미국, 일본, 유럽

참고문헌

Dale Allen Pfeiffer. 2004. *Eating Fossil Fuels*. New Society.
FiBL and IFOAM. 2015.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Frick and Bonn
지형진. 2013. 「친환경 유기농업의 현황과 전망」. 농촌진흥청.

참고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